찰나의 생활이 길이며 너 나가 있는 생활이 바로 진리이다

☞ 21면에서 계속

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 되겠기에 보이더라도 놔라, 들리더라도 놔라, 남의 마음을 알더라도 놔라, 과거를 알더라도 놔라, 내 몸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놔라. 그것은 비밀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바로 물리가 터져서 지혜를 구해서 내가 바로 그것을 실험하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을 만드는 그러한 비밀의 문서다. 비밀 문이 나한테 있다.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는 비밀 문이 나한테 있으니 내 문을, 없는 문 있는 문 다 놓고 그 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죽어야 하며 또 그렇게 비밀을 지키고 오신통에서도 벗어난다면 그때는 너나가 없이, 너 나는 틀림없이 있으면서도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툼에 의해서 응신으로서도 막강하며 나툼의 화(化)함도 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하는 거는 무엇이냐? 이 마음이라는 자체는 체가 없어서 수만 명의 모습이 달리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백억화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백억화신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이 응하는 대로 응해 주시기 때문에, 모습도 다르게, 산신을 원했으면 산신으로 보여 주고, 관세음보살을 청했으면 관세음보살로 모습을 보여 주고, 그러나 보여 준 것만이 아닙니다. 모습도 응해 주셨지마는 마음의 그 자비도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나툼은 하다못해 곤충에서부터 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나투며 화하면서 응해 주시는 부처님의 한 발 내려디딘 보살행이니 보현등의 행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화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래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라는 그 말은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응해 주시기 때문에, 목신에도 응해 주시고, 지신에도 응해 주시고, 남녀를 막론해 놓고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학식이 투철하든 말든, 박사든 박사가 아니든, 어떠한 문제를 막론해 놓고 평등하게 응해 주시기 때문에 이 도리를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떠한 한 인간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완성이 아니라 전체가 한데 합쳐진 완성이며, 같이 돌아가는 완성이며,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는 데서 응해 주시며 모두가 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리가 될 수 있고, 내 손이 될 수 있고, 내 아픔이 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천백억화신으로서 응해 주시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레가 될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관세음보살로서 여러분 앞에 응해 주실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축생으로 응해 주실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으며, 개 배 속에 들어갔을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길이며 진리다. 한 가지 얻은 것은 진리를 얻었노라. 그 진리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없는 이름이 바로 길이며 진리니라' 하신 그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 길을 따른다면 올바르게 자력 신앙으로서 우리 갈 길을 똑똑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똑똑한 건가. 모든 것을 놓고 참자기의 중심에 의해 이리로도 흔들리지 않고 저리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백장 선사가 "너희들이 땅을 파도 아니 되고, 땅을 아니 파도 아니 되니 그것은 무슨 연고인고?"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 도리를 앎으로써 농사를 지어서 일체 중생들에게 한 그릇을 가지고도 다 먹일 수 있고 그 한 그릇이 되남을 수가 있다 하신 것은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없는 선지식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나오셔서 여러분한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 **우리가 부처님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의 갈 길을 똑똑하게 갈 수 있다.**
> **어떤 게 똑똑한 것인가.**
> **모든 것을 놓고 참자기의 중심에 의해**
> **이리로도 흔들리지 않고 저리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꽃 한 송이를 들자, 가섭존자는 얼굴의 미소로써 마음이 계합이 됐어. "나는 이 깨치지 않은 깨침, 이 법을 너한테 전달하노라." 쉽게 말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꼭 말을 해서만이 아는 게 아니라, 한 말을 했을 때 봇장이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전기' 하면 저 전구만을 보지 마시고 그 전력을 보신다면 아마 밝음을 만들어 놓은 저 전구와 갓을 똑바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 전구라는 물질만 보시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저 밝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만 아시지, 전력이 오고 가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전력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허나 여러분한테 전력이나 광력이나 또는 자력이나 통신력이 다 충만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도 놔서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며 일체를 놓고 비밀을 지켜야 하며, 셋째도 죽어야 하며 그 비밀로서 나투는, 응신으로서 나투는 법을 증득하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리가 터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학식으로만 배운다면, 유치원에서부터 주욱 배워 나가면서 박사 학위를 따서 거기서부터 또 자기의 소임을 맡아서 해나가는 데에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지금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여러분이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은 남의 지식과 남의 학식과 남이 만든 모든 방편을 머리에 넣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증득한 뒤에 재료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먼저냐? 여러분 마음이, 마음 내기 이전이 마음이죠? 그것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육체 안에, 오장육부 안에 악업 선업이 뭉쳐서 중생들이 돼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니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그 참나라는 중심의 참자기는 더하고 덜함도 없으며 당당하며 꿋꿋한 것입니다. 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업 선업이 자꾸 농락을 해서 그것을 뒤집어쓰고 맞고 해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도 그저 꿈을 조금만 잘못 꿔도 '아이구, 오늘 뭐가 잘못되려나 보다.' 조금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도 '아이구!' 하고서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생각 자체의 운전을 잘못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들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말하기도 싫고 그렇다면 아, 그걸 조금만 돌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여기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것도 여기지.' 아, 이러면 금방 돌아갈 거를, 그거를 노상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날더러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말하기도 싫고 이러한 병과가 있습니다." 그러거든. 왜 그걸 내게 말을 합니까, 예? 일체의 운전수는 당신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용도에 따라서 당신 앞에 닥치는 대로 운전을 잘하고 가라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묻느냐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스님께서 다 놓으라고 그랬으면서 무슨 질문을 하랍니까?" 이러신다면 내 한마디 해 드리죠. 도반들끼리 모이면 신랄하게, 문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리만큼 신랄하게, 법을 구하는 데는 서로 문답을 청하고 또는 토론을 하고 이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하는 데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는 데서 바로 체로 걸러서 내가 내 거를 만드는 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물리가 터지는 수가 많고 지혜가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저런 건 저렇게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스님은 다 놓으라고 그러시면서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랍니까?" 이런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의 그 음파를 나는 집어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여러분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내 말의 음파를 듣고 먹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력과 전력과 광력과 통신력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쪽에서 말을 했으면 그쪽에서 먹고, 그쪽에서 말을 했으면 이쪽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력과 같아서 오고 가는 것도 없이 통신이 됩니다. 무전통신이 왔다 갔다 하죠? 물이 없으면 전력이 없죠? 이 모두가 묘법입니다. 이 묘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거를 먹어 버리고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먹어 버렸다면 그냥 무(無)죠? 한 사이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끄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스님이 말을 하지 말랬는데, 그냥 놓으라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옹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부처님께서 세 가지의 여건에 의해서 우리들한테 일러 주신 거와 같이 찰나의 생활이 길이며, 너 나가 있는 생활이 바로 이 진리니라. 그러면서도 너 나가 한 사이 없고, 뜬구름과 같고, 뜬구름과 같으면서도 그 속에는 분명 네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금방 말했으면서도 금방 먹어치워 없애 버리고, 물질은 변질돼 가도 뿌리는 영원하듯이. 우리는 이 뿌리의 영원함을 발견하고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저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과 직결돼 있다는 요거 한 마디라면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모두가 거기에 종합되는 겁니다. 일일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떠한 부분을 말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 이런 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일까요? "세상에 모든 살아나가는 생활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으니." 하는 것도 또 뜬구름 잡는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듯이, 다 지켜보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끼리끼리 장단 맞춰서 끼리끼리 놀고 있습니다. 흥겨웁게 말입니다. 그러나 흥겨웁지만은 않습니다. 이 도리를 모르는 이상 끼리끼리 싸우고 뜯고, 쫓고 쫓기고, 이건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미국에 갔을 때 기독교인과 가톨릭교인이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손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거는 어떤 종교의 이름도 포함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 전체 직결돼 있는 그 자체가 '불(佛)'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불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왔으니 모두가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좋은 말씀을 하시죠? 그게, 말씀이 즉 교(敎)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지 어디 한군데 국한돼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알라신교니 뭐, 여러 가지 종교도 이름을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타력 신앙으로 믿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가 봐도 그렇고 저기 가봐도 그렇고 전부 맹종하고 있어요. 그림에 맹종하고 있고, 이름에 맹종하고 있고, 사람에 맹종하고 있고.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발견해서 그 재료를 마음대로 들이고 내면서 삶의 보람을 누리고 살라. 영원히 윤회에 끄달리지 말고, 이 우주의 진리를 시공을 초월해서 보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89년 7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